

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

-6월 28일 “배달서비스 공제조합” 출범… 유상운송 보험료 약 20% 인하,
가입률 5년 내 40→80% 목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*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“배달서비스 공제조합”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(종로)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우아한청년들, 쿠팡이츠서비스, 플라이앤컴퍼니, 로지올, 만나코퍼레이션, 부릉, 바로고, 슈퍼히어로,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

- 코로나-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, 교통사고도 증가*한 것에 반해,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**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***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.

* 이륜차사고 사상자수(명) : 19,031(‘18년)→24,006(‘19년)→24,112(‘20년)→24,243(‘21년)

**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(평균) : 약 178만원 (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)

***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(%) : 38.7% (‘22.9월 기준, 보험개발원)

-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,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(‘22.10)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.

-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·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%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,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,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”라고 강조하며,

- “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하여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,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	책임자	팀 장	지동선 (044-201-4152)
		담당자	사무관	강근하 (044-201-4158)
			주무관	임대한 (044-201-4157)

참고 1

배달서비스공제조합 출범식 개최 계획

□ 개최 계획

- 일 시 : 2023. 6. 28.(수) 14:00
- 장 소 : 코리안리 빌딩 12층 강당 (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)
- 참 석 : 국토부 제2차관, 조합원사*, 한국교통안전공단, 자동차손해
배상진흥원장, 배달종사자 등 30여명

* 우아한청년들, 쿠팡이츠서비스, 플라이앤컴퍼니, 로지올, 만나코퍼레이션, 부릉, 바로고, 슈퍼
히어로, 스파이더크래프트

□ 세부 일정

 차관께서 하실 일

시 간	행사 내용	비 고
13:50 ~ 14:00	10' 사전 티타임 (차관, 조합원사 대표 등)	행사장 옆 별도 공간
14:00 ~ 14:03	3'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	사회자(전문사회자)
14:03 ~ 14:04	1' 내·외빈 소개	사회자
14:04 ~ 14:07	3' 공제조합 소개 동영상	
14:07 ~ 14:12	5' 추진 경과보고	공제 이사장
14:12 ~ 14:16	4' 축 사	차관
14:16 ~ 14:20	4'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협약식 - 협약서 낭독 및 기념촬영	차관 · 참석자
14:20 ~ 14:24	4' 출범 선포 세레머니 - 공제 출범의 의미를 담은 상징성 있는 행사 기획	차관 · 참석자
14:24 ~ 14:27	3' 기념촬영 (종료 후 차관님 퇴장)	차관 · 참석자

행사 폐회

참고 2

공제조합과 민간 보험사와의 비교

구 분		배달서비스공제조합	손해보험사
법인 특징	법인 성격	비영리성	영리성
	설립 방향	국내최초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제조합 - 시스템-프로세스 중심의 저비용-고효율 공제구축	-
	주요 고객	소속 배달 종사자	불특정 일반인
	운영 목적	종사자, 조합원 권익 보호 사회적 기여	수익 추구
	운영 차종	소화물배송대행 이륜자동차	개인소유 승용자동차 중심
운영 방식	상품·요율 정 책	적정요율 부과 및 상품 확대 원칙 - 저비용 사업비율 구조 요율 반영 및 전용 상품 라인업 확대	수익위주 요율 및 상품 제도 - 수익중심 상품 정책
	운영효율 (사업비율)	저비용·고효율 비용 구조 - 손해보험사 1/2 이하 수준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	-
	인수 정책	안전운전 유도 (인수거부 없음)	선택적 인수

□ 기대효과

① 종사자 측면 : 23만명 종사자 안전 및 처우 개선에 직접 기여

- (보험료 인하) 민간 보험사 대비 약 20% 저렴하게(178만원→143만원, △35만원) 출시하여 종사자의 가입 부담 완화
- (맞춤형 공제상품) 전업·부업이 혼재된 종사자 특성 등 감안, “월단위”와 “시간제” 공제상품을 별도 출시하여 가입 편의성 증대
- (기타 안전·복지 사업) 배달 안전교육 시행, 종사자 쉼터 조성 등의 부대사업 추진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

② 일반 국민 측면 : 공제조합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

- 보행자 등 사고피해자들이 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직접 수혜 대상

□ 향후 추진 목표

○ (가입 대수) 5년 이내 약 12만대 공제조합 가입 목표*

* 전체 약 23.7만대중(전업 배달종사자 기준) 50% 이상 공제조합 가입 목표

○ (보험가입률) 5년 이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약 2배* 신장 목표

* 목표 보험(공제 포함)가입률 : 38.7% → 80.0% (보험 + 공제 가입자수 19만명 확보 목표)

○ (서비스 혁신)

① (시스템) 국내 최초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제조합 지향

* 가입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·연계 적극 활용

② (상품) 가입 인수거절이 없는 합리적 요율체제로 운영

* 민간 보험사의 할증 위주 보험요율 정책 및 선택적 인수와 달리,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거절이 없는 합리적 요율제도 운영 (월단위 할인할증 평가 시행 등)

③ (부가서비스) 특화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종사자 복지 강화

* 이륜자동차 수리 지원(입고지원, 예상수리비 산출 제공), 긴급출동 실비 서비스, 제휴카드, 안전교육 등 특화 서비스 제공

④ (사고예방) 자율적인 안전 운전 유도

* 운행 관련 데이터 및 안전교육 참여도를 공제상품과 접목하여 개인별 안전운전 진단 컨설팅 및 할인요율 적용 등(종사자 운행 습관 측정을 통한 할인 요율 제공 등)

참고 4

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인포그래픽

